

새마을 運動과 科學技術

科學을 常識化 技術을 生活化

◇ 生活慣習의 一大革新 ◇

한 나라가 富強해지고 近代化되는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을 것이고 또 論者에 따라서 그와 같은 要因들이 반드시 모두 一致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核心的이면서도 必須的인 要因을 하나 지적한다면 科學과 技術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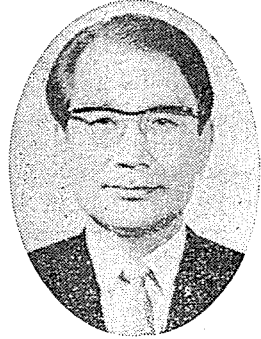
科學과 技術의 發展없이 生産力이나 經濟力을 向上시킬 수 없음을 말할 나위도 없지만 實證精神 또는 實用主義와 直結되는 科學精神의 普及없이 社會나 國家의 近代化를 이룩할 수 없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石油資源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地下資源이 賦存해 있다는 보도가 있어 크게 기대되는 바이지만 資源을 開發하고 活用할 수 있는 스스로의 科學技術의 뒷받침 없이 資源이 올바른 資源구실을 못함은 產油 後進國들의 例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後進國들과는 類를 달리하여 長久한 역사적 배경과 가장 뛰어난 科學技術의 獨創力을 지닌 民族이라는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이며 우리가 스스로 近代化하고 잘살려고 하는 노력만 傾注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先進國 隊列에 끼을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國民的 自覺과 意慾이 모이고 뭉쳐서 하나의 巨大한 國民運動으로 된것이 바로 새마을 運動인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國民생활을 科學化함은 비단 科學技術의 導入에 의한 生産力 增大로서만 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傳承的인 無氣力하고



洪文和 博士

도 非合理的인 意識構造와 生活慣習의 一大革新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意義가 있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社會운동이요, 國民의식의 혁명운동이라고 하는것도 이런 뜻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결코 農村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都市人이나 知識인들이나 우리 社會의 各界各層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呼應하고 參與해서 健進하고 명량한 社會기풍을 振作하는데에 다같이 힘써야 하며 그럼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汎國民 運動化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自覺에 立脚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科學技術人이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새마을 技術奉仕團을 求心點으로 한 새마을 科學技術化 운동에 踴躍 參加하여 활동하고 있음은 가장 뜻 깊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하여 科學技術이 우리의 생활속에 完全히 同化되어 實生活化하고 土着化되는 중대한 역사적 轉換을 이룩한다는 사실을 分明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舊殼을 깨고 自力 自助 ◇

『人間은 環境가운데 그저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環境가운데서 行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人間은 自然환경이나 전통적인 社會환경에 屈從만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알맞는 새롭고 보다 나은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뜻이 아닐까. 우리의 전통사회를 되돌아 볼 때 科學도 모르고 創意도 없고, 社會存立의 기초인 生産力의 發展도 없이 停滯, 貧困, 諦念, 空理生談, 無爲와 安逸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연환경과 사회적환경 가운데 그저 타성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이와같은 무기력한 舊殼을 깨고 自力, 自助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는 국민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舉國적으로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새 마을 운동이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 힘으로 기어히 잘 살아보겠다는 意慾과 意志를 불러 일으키는 精神革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傳統的 農業社會는 自然환경과 社會환경에 지배되고 순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지만 과학기술을 토대로 하는 近代工業社會는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과학화 없이는 近代化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고도의 과학기술의 時代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새마을 운동은 生活革命이 수반되어야 하며 생활혁명은 생활의 과학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科學化 또는 技術化가 工業을 발전시켜 生産力을 높이고, 所得増大를 이룩하는 第一主義의 人目的보다도 더 先行되는 根本的인 目的과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國民精神을 낡아빠진 傳統情性에서 탈피시켜서 合理的이고 實用的이며 意慾的인 풍토로 조성, 전환시키는데 절대 불가결한 要素가 바로 科學的인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을 선진국에서 수입하는데 급급한 發展途上國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國民生活이나 국민의 意識構造와 동떨어지게 높은곳에 군림시키는 폐단이 있다.

◇ 科學 技術을 生活化 ◇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人類의 스승인 것은 哲學을 구름위에서 市民의 廣場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인것 처럼 우리도 우리의 科學과 技術을 거룩한 學問과 상아탑의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농촌으로 가정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

科學과 技術을 일상생활의 「컨택트」(脈絡) 가운데서 실천화 시킴으로써 과학을 상식화하고 기술을 생활화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原動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科學을 단순히 생산기술 向上의 方面으로서만이 아니라, 合理性과 實證性 및 實用性을 기본으로 하는 과학정신을 국민생활에 침투시킴으로써 科學을 生活 습관화 하는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中世에 聖職者 中心主義로 부터 萬人司祭者 主義로 變遷화 시킨것이 宗教革命이듯이 과학역시 萬人 科學主義로 전환시켜야 하며, 그것이 바로 國民生活 科學化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령 비근한 실례를 우리의 生活 주변에서 찾아 본다면, 아직도 뿌리깊은 四柱八字나 行年身數니 하는 「샤머니즘」풍토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 하겠다는 意慾이 생길 수 있겠으며 창자축의 十二指腸蟲 한마리가 하루에 0.8g의 失血을 초래하며 그러므로써 100마리의 기생충이 들어 있다면 매일 80g의 귀중한 피가 없어 진다는 것은 아랑곳 않고 기 십만원어치의 녹용을 보약이라고 먹는 意識構造 下에서 어떻게 건전한 國民保健이 이루어 질수 있겠는가.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 흔하게 보아온 현미경 이진만, 그 현미경 으로 스스로의 대변속에 들어있는 회충이나 십이지 장충卵을 한번이라도 검색해 본적이 있는가를 自問할때가 온것이다.

끊어진 전기 「휴즈」를 연결한다던지 우물물을 표백분으로 소독하는 것은 너무나 통속적이어서 과학이 아니고 人工衛生이나 남의 나라의 피땀한 山이름이나 따르려는 것이 과학이나 지리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서글픈 「난센스」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 새마을 技術 奉仕團 ◇

우리나라의 1백수십개 과학기술관계 學會연합체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서는 國民生活의 科學化와 쓸모있는 과학기술의 보급을 목표로하여 「새마을 기술 봉사단」을 조직한지 5년째 접어든다.

모든 전문분야의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 현장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최선의 과학기술지식을 구체적으로 지도 보급·활용케하는데 目的을 두고 「1科學技術者 1마을技術結緣」사업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부엌아궁이에 뚜껑을 다는것이 왜 필요하며 土壤의 酸性, 「알칼리」성이 농작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직접 눈앞에 보여줄 때 비로소 농민들에게 과학정신이 깃들이기 始作하는 것을 필자 자신도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는 바로 이걸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최근 어느 공식상에서 차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이란 처음부터 큰것을 노릴것이 아니라 작은일 부터 조용히 해나가면 되는것』이라고 한것은 바로 그대로 국민생활의 과학화에도 적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되어야 한다.

◇ 國民保健과 새마을 運動 ◇

1967년에 科學技術處가 마련한 우리나라의 80년대를 내다보는 科學技術의 長短期 전망가운데 보건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예방이 가능한 疾病, 예전대 전염성 질환이나 기생충 질환등의 대부분이 消退할것이며……, 대표적인 국민병으로서 막심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結核의 罹患率이 現在의 5.1%에서 1% 이하로 저하될 것이며, 기생충의 감염율도 현재의 90%에서 5%이하로 저하 될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나서 이와같은 계획의 달성은 保健教育의 普及, 食生活의 改善, 環境위생의 향상등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보건사상 및 위생환경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생에 대한 국민의 자

覺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생활의 과학화라는 일대혁신 없이는 千萬金의 投資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우리나라의 衛生思想을 돈 안들이고 과학화 할수 있는 絶好의 기회라고 아니할 수 없다.

◇ 國民生活科學化의 洗禮 ◇

또 科學技術 振興財團은 과학하는 사회 풍토의 조성은 국민생활의 기초인 가정생활의 과학화에서 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는 발상아래 1973년부터 主婦生活 科學講座를 실시하고 있다.

「테마」도 가장 비근한 가정생활 주변의 문제인 衣·食·住로부터 始作하여 보건 위생·育兒·가정관리·生活科學·生活法律·消費절약·生産의인 敎養·취미 등을 선택하고 이미 38개 都市에서 4만명 가까운 主婦들을 수강시킨 실적을 내고 있다.

옛말에 『一樹一獲者 穀也, 一樹十獲者 木也, 一樹百獲者 人也』라고 하였듯이 곡식을 심고 森林을 가꾸는 일도 좋지만, 사람을 가꾸고 가르치는 일처럼 보람있고 수확이 많은 사업은 없는 것이다.

國民生活 科學化의 세계를 받은 새마을 주민의 수가 지금은 비록 幾萬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核心이 되어 불어 나갈 때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화도 또한 달성 될 수 있는 現實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近世 初期의 哲學者인 「베이콘」이 「아는것이 힘」이라는 뜻으로 「Scientia Potentia ést」라는 말을 썼는데 안다는 「知」에 해당되는 「Scientia」에서 오늘날 「科學」을 뜻하는 「Science」라는 말이 생긴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느낄수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 당국이 工業立國, 輸出增大, 祖國近代化의 3大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도의 과학기술 개발에 힘쓰는 한편 과학하는 국민의 저변확대와 풍토조성을 이룩하는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과 결부시켜 앞서 말한 기술 봉사단 또는 생활과학 강좌등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가장 수확성 높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